

---

제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

일시 1957년5월28일(단기4290년) 상오10시20분

---

개회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폐회
- 

(10시 20분 개회)

○간사장 신용석; 지금부터 제11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의장님의 식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친애하는 위원동지여러분 존경하는 방청시민 여러분 25일 현명하고 양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이 주거하는 도시 서울에서 더군다나 백주에 수많은 정체불명의 폭력배의 「테로」로 위하여 많은 우리 시민이 유혈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마이크」가 불살리워져서 마침내 평온하고도 합법적인 정치집회가 해산을 하지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름으로서 자유인도 관용책임의 제도를 창설하고 법치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민주국가에서 더군다나 문화 지식수준이 가장 높은 수도 서울에서 감행된 이 불상사건은 서울시민의 지대하고도 심각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

다.

서울시민은 생명과 자체의 안전과 보호에 대하여 전률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면서 쌓아 올린 거룩한 민주주의적 기본권리가 유린되는 도시치안에 대하여 커다란 의아와 전전긍긍한 불안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이익을 옹호 도모하고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본회의가 시민의 생명 신체 기본적 권리에 관련되는 이 중대사건을 간과할 수 없음은 본회의의 정상하고도 자연스러운 또 의무적인 사명이기에 본임시회의가 긴급소집된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지방의회로서의 우리 이 서울특별시 의회도 민주정치이념 아래서 존립구성되고 또 민주정치가 운영됨으로서 그 건전한 발전과 향상이 이루어짐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비민주적인 불법 폭력 독선 개인 또는 소수의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행위가 감행된다면 우리 의회도 그 존립가치가 우국되든지 또는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 속에서 불법 폭력이 감행되고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행위가 감행된 것은 단지 민주정치의 황혼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열렬히 지원성원을 하여 이 의회를 구성케 하여준 서울시민의 유대에 위배되어 유명무실한 서울 특별시의회로 타락케 하는 적신히일 것이며 서울시민의 이익을 옹호 도모하기 위한 본회의 본래의 사명의 행사를 불가능케 하는 전조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임으로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서울시민의 이익을 위한 우리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그 당파소속을 막론하고 진지하고도 순결한 애국지성과 향토애를 발휘하여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저의 건강이 근래 극히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시민 용기 있는 서울특별시 시민인 여러분과 더불어 사회 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회의가 이성적으로 질서있게 진행되기를 부탁하면서 개회사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간사장 신용석;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신용우; 제11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제하여 인용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구성이래 9개월이라는 단시일이였습니다 마는 그 동안에 업적은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금번 회기에 있어서도 행정의 건전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오나 이상으로서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단기 4290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고재봉

○간사장 신용석; 다음은 만세삼창을 운영위원회장께서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일동 만세삼창)

이상으로서 제11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0분 휴회)

---